JP 외교활동사外交活動史 1부-미국

"JP는 역사다" 운정재단이 출범한 이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역사를 논할 수 있음은 구체적으로 연구와 서술을 통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직접 우리들이 지각知覺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사료史料를 매개로 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면 JP를 왜 역사로 표현하는가? 2015년 발간된 화보집에 이어 지난 3월 증언록을 통해 보았듯이 운정의 지나온 90년 발자취는 모든 것이 사료에 근거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정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의해 설립된 것도 JP와 관련된 관련 사료들을 총합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운정재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각종 사료들을 지면을 통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수집,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합니다. 매번 주제를 달리하여 각종 아카이브들을 공개하여 관련된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1966.10 캔사스주 석탄 노천광산에서 채취작업을 하는 500톤 포크레인의 쇼벨 안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 '웨스트 민스터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다음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석탄광石炭鑛에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평지에 탄맥炭脈이 깔려 있는 탄광인데, 쇼벨(굴착과 싣기 작업을 하는 기계)로 한 번 퍼 담으면 석탄을 5백톤이나 파서 옮겨 놓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면 금방 운하 같은 것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생산된 석탄을 하루 3천량의 화차가 실어 나릅니다.'미국의 힘을 대변하는듯 했습니다
– 2006.5.16 이코노미스트

운정의 여러 분야의 공업功業 중에서도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를 위해 가장 오랫동안 매진하고,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분야는 후진국의 낙후된 국력을 쇄신하고 민족중흥과 근대화를 위한 외교 활동입니다.
운정 외교력의 발판은 미국보병학교 유학부터 시작합니다. 1961년 5.16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한 미8군 사령관과의 담판, 협상과 미 정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 CIA 정보관들과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는 운정의 외교력은 공식, 비공식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탁월한 설득력과 비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계 은퇴에 이르기 까지 운정은 46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을 중앙정보부장, 당의장, 국무총리, 대통령특사의 자격으로 때로는 자연인의 입장으로 각국의 최고 통치자로부터 의회, 학계, 산업계, 문화계 등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조우遭遇하고, 지속적으로 교분交分하므로서, 개인적 친분이 아닌 국가의 인적외교자산을 폭넓게 축적하여, 오늘 날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는 데에 누구보다 혁혁한 공적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